

LG, 마곡에 융·복합 연구단지 조성

SH공사 분양 13만평방미터 분양 신청 ... 4조원 투자 12개 계열사 입주

LG는 4월3일 서울시 SH공사가 분양하고 있는 마곡산업단지의 연구단지 총 13만여㎡ 분양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LG는 “당초 신청한 면적만큼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있으나 우선 마곡에 첨단 융·복합 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분양면적 변경에 따라 입주 계열사와 연구분야 조정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LG는 연구단지를 조속히 진행하고 부지 추가확보를 통해 궁극적으로 LG의 미래성장을 이끌 글로벌 연구개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방침이다.

LG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와 인력에 따른 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 마곡에 2021년까지 약 4조원을 투자해 12개 계열사가 입주할 연구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23만여㎡의 융·복합 연구단지 용지 분양을 신청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4/04>